올해를 빛낼 광주·전남 스타

AG 수영 '동'…전남제일고 이 지 은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게 꿈"

"오는 3월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험을 쌓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반드시 메달을 따겠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경영 여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이지은(18·전남제일고)양의 신년 포부다.

국내무대에서는 이미 적수가 없지만 아시아권과 세계무대에서는 아직 2%부족 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해를 여는 각오가 남다르다.

3월 세계선수권 1차 목표

단순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부착하는 것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 세계무대에서 이지은 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는 더이상 국내용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내년이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올 해부터는 서서히 세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수영선수로서 격차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인정했다.

그래서 이지은의 2007년은 물과 함께 시작했다. 올 3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촌각이 아깝다.

이남현 전남수영연맹전무와 함께 제일고 기숙사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신년을 열었다.

새벽 5시 30분 기상해 러닝을 한 후 아침 식사, 그리고 수영훈련이다. 2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5시 30분까지 기술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웨이트트레이닝으로 체력을 다진다.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표로 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픈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믿기 때문이다.

이지은의 목표는 세계선수권이 아니라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다. 올림픽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고 생활한다.

스피드·체력훈련 구슬땀

이제 고3. 아직도 부모님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이지은은 빨리 어른이 됐다.

7살때부터 원형탈모증을 앓아왔고 초등학교 6학년때에는 온몸의 터이 빠지는 전신탈모증을 겪으면서 머리카락이 없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지은이로서는 또래 아이들이 겪지 못한 불행을 이겨냈기 때문에 속내가 깊다.

이미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도리어 이러한 아픔을 수영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정도다.

"수영 외엔 별 취미 없어요"

이지은은 "수영이 없는 나의 인생을 생각 할 수 없다"며 "수영이외에는 다른 취미나 활동이 별로 없을 정도다"고 활짝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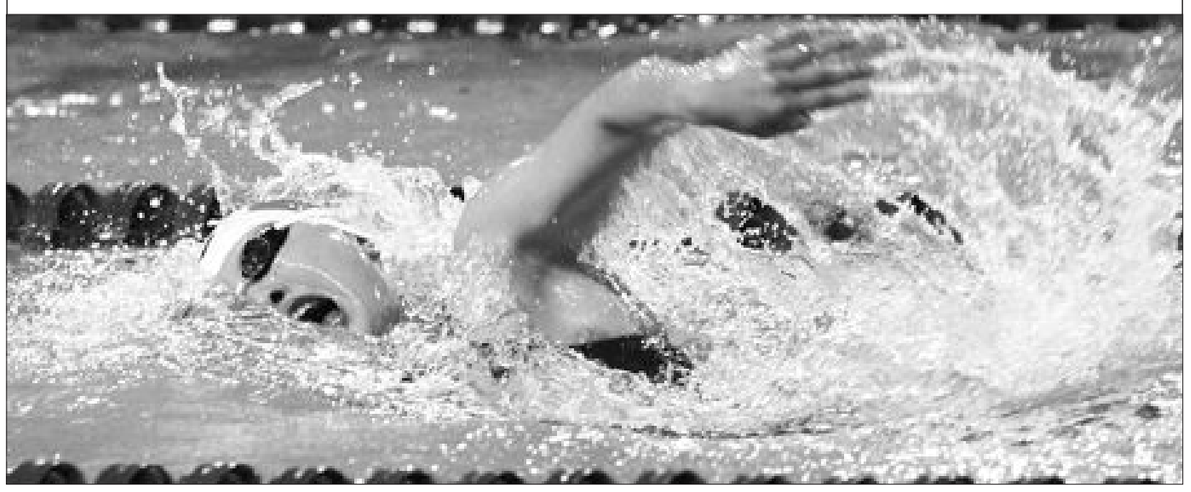
약을 먹으면 호전될 수 있지만 도핑테스트 때문에 약을 먹지 않는다. 항상 모자를 써야 하지만 수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8㎝ 55kg의 당당한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워넘치는 스트로크로 자유형 400m에서는 세계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게임에 지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성이 뛰어나 파워만 보강하면 앞으로 대성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체의 장애를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물살을 가르는 이지은의 2007년은 기대로 충만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동계유니버시아드 123명 파견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2007 동계유니버시아드에 123명(임원 34명, 선수 8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4일 밝혔다.

결단식은 9일 오후 2시30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된다.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상임위원인 홍양자 이화여대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선수단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의 5개 종목에 출전한다.

빙상·스키 등 5개 종목 출전

17일부터 伊 토리노서 개막

이번 선수단에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14년만에 동메달을 획득한 이강석(한국체대)이 출전하고,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에서는 토리노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리스트 강윤미(한국체대)가 나선다.

피겨에서는 여자 피겨 라이벌인 최지은(세화여고·성신여대 진학예정)과 신예지(광문고·서울여대 진학예정)가 세계 랭킹 6위인 일본의 안도 미키를 상대로 '금'대결에 나선다.

스키 알파인은 국내 주요 선수들이 28일부터 중국 창춘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때문에 대학생 유망주들로 채워졌다. 선수단 본진은 12일 출국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계약금 30억"

최홍만, K-1과 3년 계약 연장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7)이 종합격투기 K-1과 3년 계약을 연장했다.

K-1 주최사 FEG 다니카와 사다하루 대표는 4일 "최홍만과 3년 계약을 했다"면서 "2009년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K-1 경기에 출전하게 되며 기회가 닿는다면 미국에서 열릴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니카와 대표는 이어 "뛰어난 선수인 최홍만과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 그는 입식 타격 뿐 아니라 종합격투기 룰 방식으로 해마다 5차례 정도 K-1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최홍만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죄송하다"면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밝히지는 않았다.

일부 매체가 30억~80억원 수준에서 최홍만과 계약했다고 전했으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긴 어렵다.

FEG와 선수 에이전트 모두 특정 선수의 계약금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04년 K-1에 데뷔한 최홍만이 당시 2년 계약에 대략 10억원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계약금과 출전 수당을 합쳐 최대 30억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無籍선수 안정환 삼성입단 가능성

2006 독일월드컵 축구 이후 6개월 넘게 '무적(無籍) 선수' 신분으로 남아있는 안정환(31·사진)이 K-리그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헌 수원 단장은 4일 "우리 구단은 조건이 맞다면 안정환을 데려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동안 안정환 측과 몇 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컸지만 최근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안정환 측이 연봉 등 계약 조건을 많이 양보했다. 앞으로 남은 협상이 잘 이뤄지면 안정환과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안정환은 일본프로축구(J리그) 몇몇 구단에도 입단을 타진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K-리그 컴백으로 거취를 결정하고 수원, 성남 등 국내 일부 구단과 접촉해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주 시즌 첫 티샷

오늘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개막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2007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공식 대회 첫 티샷을 날린다.

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대회조직위원회가 4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1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최경주는 출전 선수 34명 가운데 첫 번째 조에 포함됐다.

애덤 스콧(호주)과 동반자가 된 최경주는 대회 첫날인 5일 스콧에 앞서 티오프할 예정이어서 2007년 시즌 첫 티샷을 날리는 선수가 됐다.

최경주에게는 전년도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하는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이 세 번째 출전으로 2003년 대회 때는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62타)를 세워 어니 엘스(남아공)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대회 사상 첫 4연패에 도전하는 '개막전의 사나이' 스튜어트 애플비(호주)는 관례에 따라 맨 마지막 조에 편성됐다.

SBS골프채널은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5일(금)

▲PGA투어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1R(08 : 00·SBS스포츠)

▲NBA〈LA레이커스-덴버〉(12 : 20·SBS스포츠)

▲여자농구 겨울리그 개막전〈우리은행-삼성생명〉(13 : 50·MBC)

▲대학장사씨름 4차대회 용장급(14 : 00·MBC ESPN)

▲프로농구〈삼성-동부〉(18 : 50·Xports)

▲WTA 테니스 왓슨스 워터 준결승1(18 : 50·SBS스포츠) 준결승2(20 : 50·SBS스포츠)